

● REC

99%

orbibooks

문학 FOCUS

전자
저자
정지환



만화 FOCUS



‘이게 무슨 말이지?’

시험장에서 낯선 문학 작품을 마주한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입니다.

분명 열심히 공부했는데, 막상 시험장에서는 작품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리고 곧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작품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겠구나.’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다루는 정지환이라고 합니다.

수험생들과 함께하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습니다.

문학 작품을 대하는 방식에는 정답이 없지만, 시험에서는 정답을 찾아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기출을 보면 점점 더 난해하고 복잡한 작품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이런 작품들을 마주했을 때, 완벽하게 이해하고 감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완벽하게 공감해서 이해와 감상을 했다면 문제 풀이도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붙잡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연습해야 합니다.

‘이해와 감상’을 갖고 닦아서 작품의 감상 능력을 키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의존하는 방식입니다. 누군가는 이 방법으로 정점에 도달할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는 정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개개인의 능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도, 머릿속에 심상을 그려내는 능력도 다르다고 합니다. 개인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한 가지 방식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와 감상’과 ‘인지와 판단’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와 감상’은 수능 국어의 출제 근거상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와 감상’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점수를 올려야 하는 상황을 마주했을 때, 부족한 ‘이해와 감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인지와 판단’이 필요한데, 이 역량은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체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책에 ‘최소한의 이해와 최대한의 판단’을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국어의 성적 상승을 논할 때, 항상 나오는 주제는 시간 단축입니다.

시간 단축 방법을 논할 때, 비문학을 단축할 것이냐 아니면 문학을 단축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문학이 아닌 문학을 단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학은 비문학과 달리 정보량이 훨씬 적기에 처리에 사용할 자원이 적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문학은 비문학과 달리 작품을 읽으며 풀 수 있고 문제를 먼저 보고 작품 판단의 기준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중의 서적이나 강의는 이 부분을 다루지 않거나 가볍게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다릅니다.

다른 책들과 달리 문학의 풀이 순서를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결론을 내려줍니다.

이 책은 다른 책들처럼 검 하나로 모든 적을 이기는 천하제일 검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책은 검을 효율적으로 휘두르는 법과 더불어, 검에 독을 바르고, 가방에 표창과 연막탄과 화약을 넣어 주고, 강한 적을 만났을 때, 퇴로를 확보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이 책은 단순한 기출 문제집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담은 구성으로 기출 문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풀 세트가 아닌 경우가 많고 한 지문당 한 문제가 많습니다.

꼭 기출 문제를 1회 이상 풀이한 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자신이 따르던 커리큘럼과 병행해도 됩니다.

결국 대부분의 수능 문학 커리큘럼은 이해와 판단의 비중이 다를 뿐 다루는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품 해설에서는 이해가 필요하다면 논리를 동원한 이해를, 인지로 충분하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판단을 다루고 갑니다. 문제 해설을 읽으면서 작품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도록 작성했습니다. 작품 근처의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문장의 맥락에 맞게 자연스럽게 재진술해서 다루었기에 읽으며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한편 해설만으로 배워갈 수 없는 지점도 있기에 ‘교훈’ 파트도 삽입해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약간 말 많은 과외 선생님이 옆에서 하나라도 더 얻어가라고 알려주는 것들이 담겼습니다.

저는 수년간 3~4등급에서 진동하다가, 단 일 년 만에 18년도에 1등급으로 점프했고, 다음 해에도 그 성적을 유지해 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2년도 불국어에서 표준점수 139인 백분위 99로 올려 냈습니다.

분명 저보다 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성적 상승 비법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제 경험을 되돌아보고 일반화한 후, 학생들의 성적 향상을 도우며 그들의 성공 사례들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방법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린 결론은 문학에서의 압도적인 시간 단축이었습니다.
저는 18, 19, 22 수능에서 문학을 틀린 적이 없고 소요 시간이 20분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그 비결은 이해와 판단의 비중을 지문에 적재적소로 조절하는 것과 풀이 순서의 최적화였습니다.

이 두 개를 제가 하는 방식 그대로 옮겨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의 암묵지에 있는 것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대신 여기서는 제가 다년간 학생들과 고민하며 보편화시킨 방법론을 전해 드리려 합니다.
발전은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점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문에서 보시다.

검토진 서평

박도현

혜움 모의고사 공동저자,
서울대 로스쿨 재학

어떤 과목이든 그럴 거 같습니다만, 언어 과목의 특성상 공부에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방법론이 있기 어렵고, 방법론이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방법론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방법론을 알려준다는 글이나 책을 조금 비판적으로, 회의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이 책이 그런 회의감을 해결해 준다는 말을 한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 책의 특징은 시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문학을 다루는 한 사람의 관점을 소개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겠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하고, 효용성이 있을 겁니다. 문학에 대해 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문학과 비문학 모두에 대해서 공부방법을 한번 재검토해 보고 싶은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차동근

18년도 수능 국어 100점,
의사

수능의 주요 과목들 중 학생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과목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국어는 다른 과목들과는 약간 궤를 달리합니다. 수학을 예로 들면, 내가 다항 함수의 미적분 파트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어 관련된 문제를 많이, 열심히 풀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그 파트에 대한 실력이 상승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내가 현대시 파트가 약하다고 해서 현대시 기출을 모아서 풀면 오히려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일어납니다. 이는 국어가, 특히 문학이 사람들이 문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과 수능 문제에서 괴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학이라 하면 문학 작품에 대한 감상, 여러 평론가들의 다양한 해석을 떠올리지만, 명확한 답이 존재해야만 하는 수능에서는 그런 다양한 감상과 해석을 모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문학 작품에 나타난 근거를 바탕으로 선지의 정오를 명확히 판단하는 훈련을 해야만 문학 성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어 강의는, 심지어 ‘수능’ 국어 강의를 표방하는 강의에서도 아마 여러분이 수능을 치는 동안 다시 나오지 않을 지문 분석에 강의 시간의 70%를 쏟고 선지의 정오 판단은 대충 ‘평가원이 오답이라고 했으니깐 이걸 아니겠지’라는 식으로 뭉개는 경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책은 그러한 류의 강의와 달리 내가 배운 것과 다른 문학 작품이 나오더라도, <보기>에 강사가 알려주지 않은 해석이 나오더라도 실전적으로 문제의 답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합니다. 물론 문학 파트의 특성 상 지문 분석이 없을 수 없지만,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는 어디까지나 어떻게 해야 정답 선지를 골라서 점수를 얻어낼 수 있을까입니다.

다른 강사처럼 재밌는 썰을 풀어 주지 않습니다, 흥미로운 비사를 얘기해주지도 않습니다. 이 책을 마주한 여러분은 5분짜리 유튜브 영상에서나 얻을 법한 도파민이 아니라 국어 성적 상승이라는 더욱 극적인 기쁨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시험장 80분의 길지만 짧은 순간 동안 평가원이 요구하는 바를 완벽에 가깝게 찾아내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한 훈련. 이 책이 담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적 상승에 직효가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변이언

2015~2019학년도 수능
국어 all 1등급, 울산대학
교 의과대학 19학번,
82회 KBS 한국어능력
시험 1급

개인적으로 이 책은 현재 나와 있는 많은 국어 영역 학습도서 중에서 독보적인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국어 영역을 그냥 읽고 풀면 그만인 영역이라고 생각했고, 수험생 생활을 마친 지 이미 몇 년이 흘렀음에도 새로 나온 국어영역 시험지를 받아 들면 여전히 그냥 특별한 전략 없이 시간내 읽고 풀고 다 맞을 정도로, 별 노력 없이 국어 영역을 대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연이 닿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수험생들을 무료 과외 형식으로 도와줄 일이 많았는데, 이 과정에서 국어 영역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가르치는 입장에서 뭔가 적절한 교재가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냥 읽고 풀라고 가르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매우 훌륭한 자습교재이며, 더더욱 훌륭한 과외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의 장점을 세 가지만 추려서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특별한 기술이나 다양한 배경지식을 동원하지 않고, 마치 비문학을 풀듯이 아주 담백하고 진실하게, 무엇보다 수험생의 입장에서 문학을 접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 수능의 메타에서 매우 효과적인데, 요즘의 수능 문학은 제가 판단키에는, 우리에게 “개인적인 감상과 이해”를 할 것을 요구하기보다 “출제자가 제시한 감상”이 타당한지 검증하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자의 생각도 이와 완벽히 통하며, 이 사고가 이 책을 관통하는 하나의 큰 대전제입니다. 요즘의 출제 경향에 대응하기에는 매우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문학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의 유형을 하나하나 분석한 뒤, 최대한 시간을 줄이면서도 정확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최적화된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문학은 일반적으로 비문학보다 절대적 난이도 자체가 낮은 편인데, 그만큼 문학에서 시간과 점수를 벌고 비문학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서 어떻게 시간을 줄이고 정답률을 높일지가 관건인데, 이 책은 그 방법론을 일관되게 다양한 기출문제들을 통해 검증하고 익숙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학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분들에게는 이만한 처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집이 아니면서 이렇게 해설이 자세한 책은 보기 드뭅니다. 시중에 있는 국어 영역 문제집 중에서, 그나마 해설이 자세한 건 EBS 국어 영역 교재들이나 마X팅 기출문제집 같은 교재들이고, 그마저도 각 선지마다 해설을 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거의 모든 문제에서 선지마다 정답이나 오답의 사유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지문을 의미 단위로 나누어 하나 하나 설명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웬만큼 자세한 기출 해설 인터넷 강의를 들어도 이만큼 자세한 책을 찾기는 힘듭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다양한 교재들이 범람하는 현 상황에서도 당당히 이름을 내세울 만한 자습서, 과외 교재가 아닐까요? 문학이 고민인 모든 분들에게 충분히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문학 FOCUS



CONTENTS

.....▲.....

FOCUS 0	문학의 시간 단축	16
	<u>Subject 0</u> ‘이해와 감상’과 ‘인지와 판단’	17
	<u>Subject 1</u> 운문 파트의 풀이 순서	22
	<u>Subject 2</u> 산문 파트의 풀이 순서	42
 FOCUS 1	 문학 독해 기본기 다지기	 58
	‘화자/상황/대상/정서’의 바꿔치기를 주의합시다.	
	<u>Subject 1</u> 1911 김인겸, 「일동장유가」 45번	60
	학습목표 • 고전 시가의 대화적 구성에서 화자와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기	
	<u>Subject 2</u> 2506 (나) 성현, 「타농설」 26번	64
	학습목표 • 고전 수필의 대비 구조에서 범주잡고 대상 구별하기	
	<u>Subject 3</u> 2406 (나) 오규원, 「봄」 33번	69
	학습목표 • 현대 시에서 시어의 맥락적 의미를 파악하고 ‘배경과 대상’ 명확히 구별하기	
	<u>Subject 4</u> 2509 (나) 문태준, 「살얼음 아래 같은 데 2 — 생가(生家)」 25번	72
	학습목표 • 현대 시에서 같은 범주 내 대상들을 세밀하게 구분하기	
 FOCUS 2	 <보기>의 활용	 78
	출제자가 작품을 들여다본 흔적이 바로 <보기>입니다.	
	<u>Subject 1</u> 2409 (가) 정철, 「성산별곡」 / (나) 작자 미상, 사설시조 34번	83
	학습목표 • 갈래 비교 <보기>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적용하기	
	<u>Subject 2</u> 2411 (나) 유박, 「화암구곡」 34번	91
	학습목표 • 일대일 대응 <보기>의 복잡한 정서를 작품에 적용하기	
 FOCUS 3	 선지를 통한 시간 단축	 98
	선지가 묻는 바를 통해 부족한 지문 이해를 보완하고 시간을 단축합시다.	
	<u>Subject 1</u> 1206 (나) 김광균, 「수철리」 23번	100
	학습목표 • 선지를 먼저 보고 요구사항을 파악한 후 목적성 있는 지문 독해로 시간 단축하기	
	<u>Subject 2</u> 1409A 고정희, 「상한 영혼을 위하여」 33번	103
	학습목표 • 선지 분석을 통해 다양한 해석의 허용 가능성 판단하기	
	<u>Subject 3</u> 1906 (나) 배한봉, 「우포늪 왓새」 30번	106
	학습목표 • [A]~[E] 구간별 문제에서 구간에서 선지가 묻는 것을 파악하고 해당 구간의 해석의 허용 가능성 판단하기	
 FOCUS 4	 이해와 감상 vs 인지와 판단	 112
	최소한의 ‘이해’와 최대한의 ‘판단’을 연습합시다.	

Subject 1	0909 (가) 서정주, 「꽃밭의 독백- 사소(娑蘇) 단장」 31번	114
	학습목표 • 난해한 작품에서 '이해'와 '판단'의 균형잡기	
Subject 2	2511 (나) 허수경, 「혼자 가는 먼 집」 24번	118
	학습목표 • 난해한 작품에서 화자와 대상 바꿔치기 함정 피하기, 선지를 통한 도움닫기	
Subject 3	1911 (가) 유치환, 유치환, 「출생기(出生記)」 34번	123
	학습목표 • <보기>와 선지를 통해 구간별 상황을 추적하며 판단하기	
Subject 4	2006 (나) 오규원, 「하늘과 돌맹이」 44번	126
	학습목표 • <보기>와 선지를 통해 작품 해석의 허용 가능성 판단하기	
Subject 5	2209 (나)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29번	129
	학습목표 • 묵묵히 시어 간의 관계 파악하기	
Subject 6	1106 (다) 이성복, 「서해」 22번	132
	학습목표 • 문장 간의 관계를 통해 상황 이해하기	

FOCUS 5 고전 문학의 임기응변 138

여휘를 모르면 포기해야 할까요?

Subject 1	2011 신계영, 「월선헌십육경가」	140
	학습목표 • 맥락으로 고전 여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임기응변 능력 기르기	
Subject 2	2111 정철, 「사미인곡」	149
	학습목표 • 맥락으로 고전 여휘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임기응변 능력 기르기	
Subject 3	2311 (가) 이항, 「도산십이곡」 24번	155
	학습목표 • 여휘 추론 연습하기	

FOCUS 6 방향성 판단 162

방향성을 파악해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Subject 1	2106 정철, 「관동별곡」 40번	163
	학습목표 • 중간에 끼워 넣는 함정 피하기	
Subject 2	2409 (다) 서영보, 「문의당기」 26번, 27번	167
	학습목표 •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선지에서 물을 때 실수하지 않기	
Subject 3	2411 (가) 김종길, 「문」 23번	170
	학습목표 •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기	

FOCUS 7 범주 나누기 176

범주를 나누기 위해 기준점을 잡아 봅시다.

Subject 1	1309 (가) 윤동주, 「또 다른 고향(故郷)」 28번	177
	학습목표 • <보기>가 제시된 상황에서 기준을 잡고 범주를 나누어 대상들 분류하기	

Subject 2	1409B (가) 유치환, 「생명의 서·일장(一章)」 39번	181
	학습목표 • <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잡고 화자의 지향점 파악하기	
Subject 3	2106 (가) 조지훈, 「산상(山上)의 노래」 23번	185
	학습목표 • <보기>가 없는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기준을 잡고 화자의 지향점 파악하기	

FOCUS 8 소설의 시점 192

인물을 통해 시점을 파악합니다.

Subject 1	0806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25번	194
	학습목표 • 의식의 흐름이 주된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의 유무로 시점 파악하고 내면 심리의 서술 여부 파악하기	
Subject 2	0906 현길언, 「신열(身熱)」 31번	199
	학습목표 • 액자식 구조의 내화와 외화를 구별하며 시점 파악하기	
Subject 3	1309 김동리, 「역마」 48번	206
	학습목표 • 기호 밀줄 부분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기	
Subject 4	2306 채만식, 「미스터 방」 31번	212
	학습목표 • <보기>가 제시된 복잡한 시점의 처리 연습하기	
Subject 5	2406 최명익, 「무성격자」 30번	219
	학습목표 • <보기>를 기준삼아 초점화된 화자를 파악하고 작품 독해하기	
Subject 6	2506 임철우, 「아버지의 땅」 27번	226
	학습목표 • 기호 밀줄 선지가 요구하는 것을 통해 복잡한 소설 독해하기	
Subject 7	2509 윤홍길 「날개 뜨는 수갑」 28, 31번	233
	학습목표 • 인물을 통해 시점과 사건 파악하기	
Subject 8	2511 이청준, 「배꼽을 주제로 한 변주곡」 28번	245
	학습목표 • 기호 밀줄 선지가 요구하는 것을 통해 복잡한 소설 독해하기	

FOCUS 9 소설의 시공간 254

시간과 공간을 기준 삼아 장면을 분할해서 읽어 봅시다.

Subject 1	0909 오상원, 「모반」 47번	255
	학습목표 • <보기>에서 제시된 시간 기준을 통해 작품 독해하기	
Subject 2	1606A 김유정, 「봄·봄」 37번	262
	학습목표 • 시공간을 통한 상황 파악하기	

FOCUS 10 소설의 인물 272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합니다.

Subject 1	2511 정을선전 20번	274
	학습목표 •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과 연결 짓기	

	Subject 2 2411 박태원, 「골목 안」 30, 31번	284
	학습목표 • 인물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건과 연결 짓기	
FOCUS 11	소설의 인물과 시공간	296
	인물을 통해 시점을 파악하고 시간, 공간을 파악합니다.	
	Subject 1 2409 양귀자, 「원미동 시인」 30, 31번	297
	학습목표 • 인물을 통해 시점과 시공간 파악하기	
FOCUS 12	소설의 소재	308
	작품의 전체 맥락에서 소재의 역할을 파악합니다.	
	Subject 1 1111 이호철, 「나상(裸像)」	309
	학습목표 • 작품 맥락에서 소재와 행위의 의미 파악하기	
	Subject 2 2111 「최고운전」 32, 33번	319
	학습목표 • 작품 맥락에서 소재와 행위의 의미 파악하기	
FOCUS 13	소설 종합	330
	배운 바를 적용합니다.	
	Subject 1 1511B 현진건, 「무영탑」	331
	학습목표 • 인물의 내면 심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보기>와 연결하기	
	Subject 2 2506 작자 미상, 「이대봉전」	344
	학습목표 • 인물을 기준으로 독해하며 시공간을 처리하고, <보기>에 제시된 소재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기	
FOCUS 14	문학의 비문학화	356
	비문학처럼 출제된 문학, 이런 문학을 비문학처럼 읽어 봅시다.	
	Subject 1 1511B (가) 오장환, 「고향 앞에서」 45번	357
	학습목표 • 작품 맥락에서 단어의 의미 파악하기	
	Subject 2 1611B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45번	361
	학습목표 • 선지를 통해 지시적 의미 판단하기	
	Subject 3 2306 (가) 신동엽, 「향아」 34번	364
	학습목표 • 단어에 집중해 범주 나눠 읽기	
	Subject 4 2411 (나) 정끝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23번	368
	학습목표 • 시어의 의미를 작품 맥락과 선지를 통해 판단하기	
	Subject 5 2211 (다) 이옥, 「담초(談艸)」 23번	373
	학습목표 • 범주를 나누거나 지시적 의미로 판단하기	

<u>Subject 6</u>	2506 (가) 이기철, 「청산행」 32번	377
	학습목표 • 단어에 집중해 범주 나눠 읽기... 그런데?!	
<u>Subject 7</u>	2206 (가) 김기림, 「연륜」 34번	381
	학습목표 • 범주 나눠 읽고 선지의 수식절 판단하기	
<u>Subject 8</u>	2509 (가) 백석, 「북방에서-정현웅에게」 24번	384
	학습목표 • 맥락을 통한 상황 파악하기	

FOCUSING 풀이 순서의 최적화 390

26년도 6월 모의고사 적용 연습	391
--------------------	-----

FOC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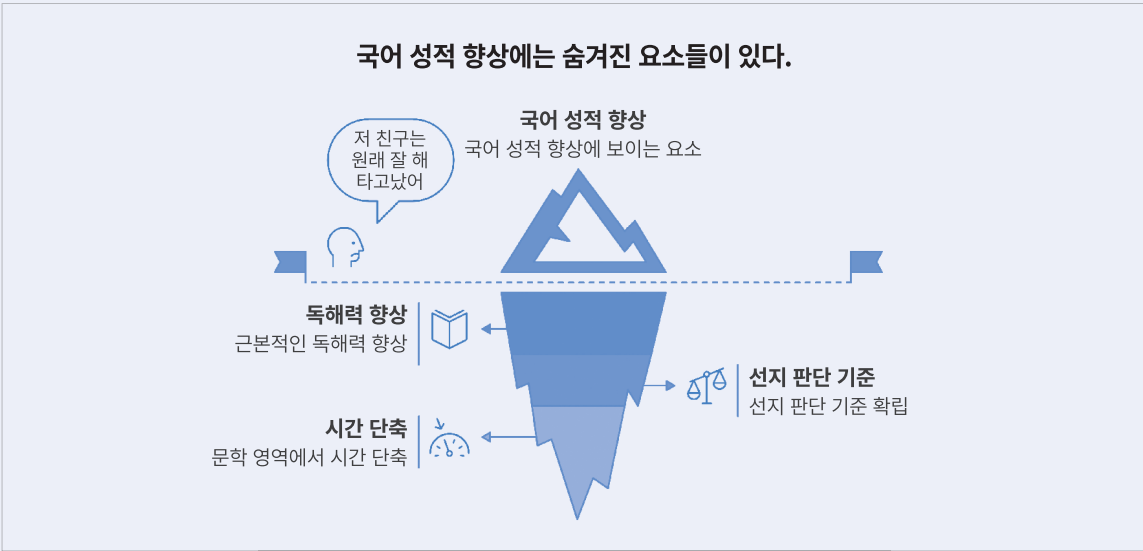


문학의 시간 단축

.....▲.....

17	<u>Subject 0</u> '이해와 감상'과 '인지와 판단'
22	<u>Subject 1</u> 운문 파트의 풀이 순서
42	<u>Subject 2</u> 산문 파트의 풀이 순서

국어 성적을 올리기 위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기출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독해력 향상과 선지 판단 기준 확립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국어의 성적 상승에 관여하는 요소가 이 두 가지 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저 두 가지 외에도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그 중 하나인 문학의 시간 단축입니다.



단축을 논하기 전에 국어를 비문학, 문학, 선택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비문학은 시간 단축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이 험난하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또한 선택(화작이나 언매)는 단축했을 때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에 15분 내외로 고정해두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문학은 비문학보다 처리할 정보도 적고 선택 과목보다 실수 위험도도 낮습니다. 무엇보다도 문학은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문학에서는 지문마다 새로운 개념과 정보가 등장하지만, 문학에서는 문학 개념어들이 반복적으로 출제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리 숙지해두면 선지 판단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어 시간 단축의 핵심은 문학입니다. 문학의 단축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읽기 방식의 효율화이고 둘째는 풀이 순서의 최적화입니다, 먼저 읽기 방식의 효율화부터 살펴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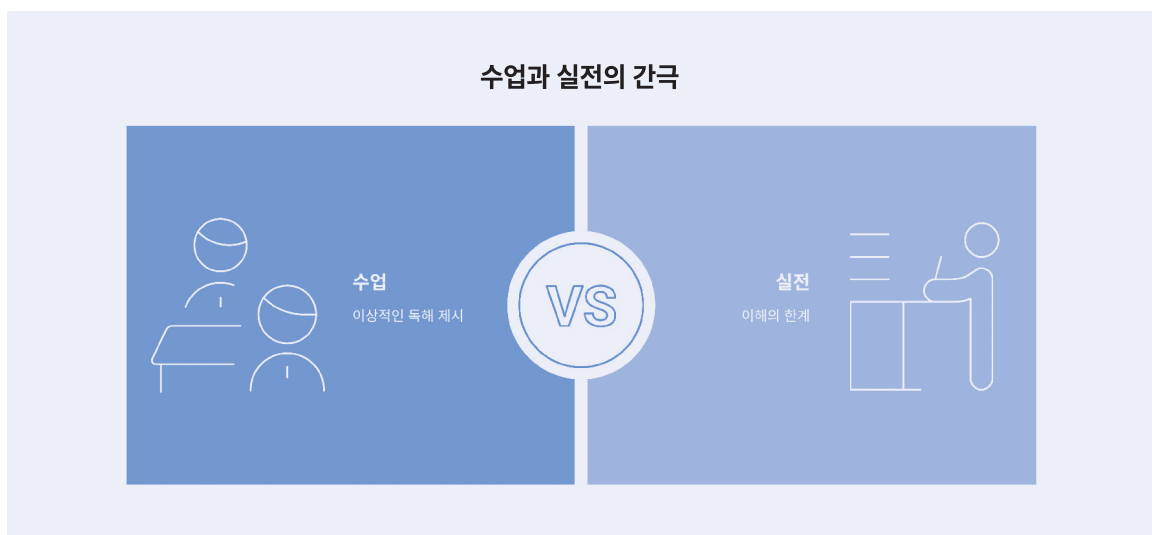
“선생님이 강의에서 하는 것처럼 하고 싶은데 잘 안돼요!”

“시험장에만 가면 배운 대로 읽히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배운 바를 적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대답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수업과 실전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수업은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구성됩니다. 교수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상적인 독해 과정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는 제한된 시간, 심리적 압박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실전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언급한 이상적인 독해를 다루는 수업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학생들이 그에 근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실전에서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대체 뭡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개략적으로 알아보시다.

FOCUS

6

방향성 판단

방향성을 파악해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

163

Subject 1

2106 정철, 「관동별곡」 40번

학습목표 • 중간에 끼워 넣는 함정 피하기

167

Subject 2

2409 (다) 서영보, 「문의당기」 26번, 27번

학습목표 •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선지에서 물을 때 실수하지 않기

170

Subject 3

2411 (가) 김종길, 「문」 23번

학습목표 •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기

단순한 함정같지만 방향성을 파악해 의식적으로 처리합니다.

작품에는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황에서 문제 선지를 구성하는 단순한 방법은 앞 뒤 바꿔치기를 하거나 중간에 무언가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이지만, 놀랍게도 수험생들의 오답률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수험생들은 문제 풀이 과정에서 작품의 방향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선지를 읽고 판단하기 때문에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실수를 한 후에도 “그냥 실수했어”라고 말하며 답을 체크한 후, 빠르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 결과 이 유형에 대한 대처방법을 갖추지 못한 채, 다시 이 유형과 마주하고 또 틀리게 됩니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작품에 제시된 사건의 방향성을 의식적으로 판단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서 ‘A → B’라는 방향(순서나 인과 관계)이 제시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선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선지에서 ‘A → C’처럼 다른 관계를 묻거나 ‘B → A’처럼 순서를 바꿔 물을 때도, 원래의 ‘A → B’라는 기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출제자들은 더 교묘하게 ‘A → C → B’같이 중간에 새로운 요소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시작(A)과 끝(B)만 대충 보고 판단할 경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해 틀리게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문제 풀이 단계에서부터 작품의 흐름을 기준 삼아 방향성을 면밀히 판단하는 태도를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작품이나 <보기>에서 제시된 ‘방향성’의 판단을 연습합니다.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괴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토 헌사할샤
 날거든 뛰디 마나 섰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갯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왓는 듯
 늑홀시고 망고대 외로울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녁(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굻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풀*
 을 다 살와 내어스라
 마하연 묘길상 안문제 너머 디여
 외나모 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애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서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서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 정철, 「관동별곡」 -

* 호의현상 :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란 뜻으로 학을 가리킴.

* 서호 넷 주인 : 송나라 때 서호에서 학을 자식으로 여기며 살았던 은사(隱士) 임포.

* 동명 : 동해 바다.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② ‘개심대’에서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중간에 끼워 넣는 함정 피하기

금강대 맨 우층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춘풍 옥적성(玉笛聲)의 첫잠을 깨듯던디
호의현상이 반공(半空)의 소소 뜨니
서호 넷 주인을 반겨서 넘노는 듯

대상 선학(仙鶴), 호의현상(학의 흰 모습)

상황 화자가 금강대(공간 배경)에서 학이 날개를 치며
날아오르는 모습을 관찰함

소향로 대향로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사 진혈대 고터 올라 안즌마리
여산 진면목이 여기야 다 뵈는구나
어와 조화옹이 헌사도 헌사할샤

대상 소향로, 대향로, 진혈대, 여산

상황 소향로와 대향로를 굽어봄, 진혈대(공간 배경)에
올라 진혈대의 경치를 '여산'에 빗댄, 금강대 →
진혈대

정서 감탄

태도 예찬적

날거든 뛰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는 듯 백옥(白玉)을 못것는 듯
동명(東溟)을 박차는 듯 북극(北極)을 괴얏는 듯
놉흘시고 망고대 외로올샤 혈망봉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사로려
천만겁(千萬劫) 디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

대상 망고대, 혈망봉('너'→의인화)

상황 망고대와 혈망봉의 모습을 빗대어 표현함, 망고
대와 혈망봉을 '너'라고 칭하며, 굽힐 줄 모르는
지조와 절개를 예찬함(In 자연, To 자연)

태도 예찬적

개심대 고터 올라 중향성 바라보며
만이천봉을 녀녀(歷歷)히 혀여 하니
봉마다 맏쳐 잇고 굿마다 서린 괴운
맑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맑디 마나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고자
형용도 그지업고 테세(體勢)도 하도 할샤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
이제 와 보게 되니 유정(有情)도 유정할샤

대상 중향성(시선)

상황 개심대(공간적 배경), 진혈대 → 개심대(공간 이동)
중향성의 맑은 기운으로 인걸을 만들고자함

(중략)

그 알피 너러바회 화룡소 되어세라
천년 노룡(老龍)이 구비구비 서려 이서
주야의 흘녀 내여 창해(滄海)에 니어시니
풍운을 언제 어더 삼일우(三日雨)를 디련느냐
음애에 이온 풀
을 다 살와 내여스라

대상 화룡소, 삼일우, 음애에 이온 풀(그늘진 낭떠러지에 시든 풀)

상황 화룡소의 모습을 천년 노룻이 서려 있는 모습에 빗대어 표현함, 시든 풀을 살려내겠다는 포부를 드러냄

태도 예찬적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 너머 디여
외나모 씨근 다리 불정대 올라 하니
천심(千尋) 절벽을 반공에 세여 두고
은하수 한 구비를 촌촌이 버혀 내여
실가티 플터 이셔 베가티 거러시니
도경(圖經) 열두 구비 내 보매는 여러히라
이적선 이제 이셔 고터 의논하게 되면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

대상 천심 절벽, 여산

상황 안문재 → 불정대(공간 이동), 절벽의 모습을 은하수를 베어내어 걸어 둔 모습에 빗댄, 여산보다 낫다는 표현이 돋보임

정서 자부심

교훈 · 작품 독해

기행 가사는 언제나 ‘시간’과 ‘공간’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파악하며, 화자가 현재 어느 공간에 있는지 파악합니다.

그리고 선지에서 공간의 이동이 제시될 경우, 화자의 시선과 구분해야 합니다. 화자가 A에서 B를 바라본다고 제시한 후, 선지에서 A에서 B로 이동했다고 물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조선의 사대부들은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들 중 대부분은 자연의 미를 관념적으로 형상화하였다. 한편 「관동별곡」의 작가는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함으로써 그들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었다. 또한 그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사대부: 하늘의 이치 → 자연 → 관념

화자: 하늘의 이치 → 자연 → 현실(사실)

① ‘혈망봉’을 ‘천만겁’이 지나도록 굽히지 않는 존재로 본 것은, 작가가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사한 것이군.

➡ 화자는 ‘혈망봉’에 ‘천천만겁(千萬劫) 다나도록 구필 줄 모르느냐’라고 묻고, ‘어와 너여이고 너 가트니 또 잇는가’라며 직접 말을 건넵니다. 이처럼 화자는 혈망봉을 굳건한 지조와 절개를 지닌 존재로 의인화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적 인간상을 자연에 투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적절합니다.

② ‘개심대’에서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은, 작가가 자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군.

➡ <보기>에 따르면 작가는 ‘자연’을 바라보며 사회적 책무를 떠올리고 자연에 투사된 이상적 인간상을 모색합니다. 작품에서 화자는 ‘더 괴운 흐터 내야 인걸을 만들 고자’라고 표현하며, 자연의 맑은 기운으로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이는 화자가 자연 감상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적절합니다.

③ ‘중향성’을 바라보며 천지가 ‘자연이 되’었다고 본 것은, 자연의 미가 [<하늘의 이치가 구현된> 인간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을 보여 주는군.

③ ‘천지 삼기실 제 자연이 되연마는’과 <보기>에 의하면 ‘자연에 하늘의 이치[天理]가 구현’되었고,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했습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하늘의 이치 → 자연’입니다. 해당 선지에서는 ‘하늘의 이치 → 인간 사회 → 자연’이라고 주장합니다. 작품이나 <보기>에서 인간 사회가 자연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④ ‘불정대’에서 본 폭포의 아름다움을 ‘실’이나 ‘베’와 같은 구체적 사물을 활용하여 표현한 것은, 자연을 사실감 있게 나타내려는 작가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군.

⑤ 화자는 ‘불정대 올라 하니’라는 구절에서 불정대에 올라 폭포를 바라보며, 은하수를 ‘실가티 플터 이서 베가티 거러시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폭포를 ‘실’과 ‘베’라는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사물에 빗대어 묘사함으로써, 자연의 아름다움을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하는 작가의 특징과 대응하므로 적절합니다.

⑤ ‘불정대’에서 본 풍경을 중국의 ‘여산’과 비교하며 우리 자연의 아름다움을 강조한 것은, 관념이 아닌 현실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을 보여 주는군.

⑥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 하려니’에서 중국의 ‘여산’과 비교가 드러납니다. 관념적인 자연이 아닌 우리나라의 자연물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이는 <보기>에서 언급한 ‘자연의 미를 현실에서 발견’하는 작가의 차별성과 일치하므로 적절합니다.



교훈 · 작품 독해 및 선지 판단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과 관계, 선후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야합니다. 단순한 방향 바꾸기부터 없는 과정 삽입하기까지 다양한 선지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보기>에서는 ‘A → B’라고 제시했으나, 선지에서는 ‘A → C → B’로 물어봤습니다. 이처럼, 없는 과정이 추가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얼핏 봤을 때, 맞아 보일 수 있습니다. 끊어서 머릿속에 넣고, 합쳐서 이해하도록 합시다.

(다)

㉠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불만한 샘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 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오.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오.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오.”

- 서영보, 「문의당기」 -

* 문의 : 물결무늬.

2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의 O/X를 판단하라. [3점]

• 보기 •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

- ②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 ×

- ③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 ×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선지에서 물을 때 실수하지 않기

신위가 자기 집 이름을 ‘문의당’이라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내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안이라 볼만한 섬이나 못이 없어 비록 물을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늘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로 아홉 개 대륙, 일만 개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범선이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가 출몰하는 듯했습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 집의 이름을 ‘문의(文瀾)’라고 한 까닭입니다.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위→‘나’]

➡ 천하의 지도를 보고, 큰 나라는 ‘범선’에, 작은 나라는 ‘갈매기와 해오라기’에 빗대며, 천하의 사람들을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신위는 일반적인 통념과 다른 주장을 펼칩니다.

나는 편지를 보고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는 본래 그 실물은 없으면서도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이 바로 그 실물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소.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지 않겠지요. 섬사람 중에는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아 사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나’→신위]

➡ 화자는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물과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하더라도, 결국 물에 사는 것이다.’라는 예시를 통해, 신위의 주장을 지지합니다.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세상 사람들은 섬사람이라오.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를 떠다니면서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형편상 눈을 한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서 잠깐 동안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요. 이때에는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 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라 할 것이요.”

대지=하나의 섬

세상 사람들=섬사람

2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의 O/X를 판단하라. [3점]

• 보기 •

문학 작품 속의 소재들은 연관성 속에서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그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 ① (다)의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바다 안의 육지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정답 ×

⇒ ‘아홉 개 대륙’과 ‘일만 개 나라’는 모두 육지로서 유사성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두 대상이 ‘천하의 지도’라는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지도’를 통해 이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의미 생성의 방향이 반대로 제시되었습니다. 원문에서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우친 점이 있었습니다’라고 했으므로, ‘신위’는 ‘지도’를 통해, ‘대륙’과 ‘나라’의 유사성을 새롭게 인식한 것입니다.

천하의 지도 → [아홉 개 대륙=일만 개 나라]



교훈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유사’와 ‘대립’의 관계만 제시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범주를 참조해야 합니다. 이때, 선지에서 인과 관계, 선후 관계에 대한 것을 묻는다면, <보기>의 범주를 고려하며 방향성을 생각합니다.

- ②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정답 ○

⇒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라는 구절에서, ‘파도’와 ‘깊은 물’은 모두 바다의 형상을 나타내는 유사한 요소들입니다. 이 두 대상은 ‘물에 사는 사람’이 접하게 되는 환경을 표현함으로써, 비록 직접 접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물에 사는’ 것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바

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어 물에 사는 사람의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합니다.

- ③ (다)의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어 각 소재가 가진 특징을 부각하고 있군.

정답 ×

⇒ ‘갈매기’와 ‘해오라기’는 서로 대비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속성(바다 위를 나는 새)을 가진 소재입니다. 두 새는 서로 ‘크고 작음의 대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의 새로서 함께 묶여 작은 나라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실제 대비는 ‘범선’(큰 나라)과 ‘갈매기와 해오라기’(작은 나라)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가)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앓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달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었다.

- 김종길, 「문」 -

* 정밀 : 고요하고 편안함.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⑤ ‘달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보기>에서 방향성이 제시되었을 때 실수하지 않기

• 보기 •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방향성 : 자연의 힘 → 인간의 쇠락과 생성

문 : 새로운 역사의 생성 가능성

깃발 : 이상

흰 벽에는 —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가 그림자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러한 정밀이 천년이나 머물렀다 한다.

화자 이면적 화자

대상 흰 벽(인공물), 나뭇가지(자연물) 상황 : 흰 벽에 나뭇가지의 그림자가 짐

단청은 연년(年年)이 빛을 잃어 두리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그러나 험상궂어 가는 것이 서럽지 않았다.

대상 단청(인공물), 두리기둥(인공물), 별(자연물), 바람(자연물)

상황 단청의 변화(쇠락)와 기둥의 변화(쇠락)를 관찰 [자연물→인공물]

정서 서럽지 않음

기왓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고 세월은 소리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혀진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

대상 기왓장(인공물), 푸른 이끼(자연물), 세월(관념의 구체화), 바람, 문(?)

상황 기왓장(인공물)에 푸른 이끼(자연물)가 앉음(쇠락) [자연물→인공물], 문이 닫혀있음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돌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분홍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

대상 주춧돌(인공물), 가을풀(가을의 자연물), 푸른 싹(봄의 자연물), 진분홍 꽃(봄의 자연물)

상황 주춧돌 위에 가을풀(쇠락)이 우거졌으나 봄이 오면 푸른 싹과 꽃(생성)이 피어남 [자연물→인공물]

⇒ 자연물은 자연을 상징하고 인공물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작품에서 반복된 ‘자연물 → 인공물’은 <보기>의 ‘자연 → 인간’에 연결됩니다.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을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사납던 비바람이 걷힌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리었다.

대상 푸른 높은 하늘, 별, 사나운 비바람, 문(!)

상황 사납던 비바람이 걷히고, 별들이 돌아오며, 닫혀있던 문이 열림, 새벽(시간적 배경)

- ⇒ <보기>에 의하면, 문이 열린 것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 그림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무치는 푸른 하늘이 었다.

대상 깃발, 푸른 하늘

- ⇒ <보기>에 의하면 '깃발'은 이상을 상징합니다. 화자는 그러한 '깃발'을 그리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바람이 그치고 문이 열리며 다시 '깃발'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보기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 ①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 온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를 보여 주는군.

- ⇒ '흰 벽'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나뭇가지'는 자연물이기에 자연을 상징합니다. <보기>에 의하면,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합니다. 이는 '자연→인간'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나 해당 선지에서는 '인간→자연'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힘의 방향이 반대로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가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② '두리기둥'의 틈에 별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드는 것을 서럽지 않다고 한 것은, 쇠락해 가는 인간의 역사가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을 수용함을 드러내는군.

- ⇒ '두리기둥'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별'과 '바람'은 자연을 상징합니다. '두리기둥'에 '틈'은 인간의 역사가 쇠락함을 드러냅니다. 이 '틈'에 자연의 힘을 상징하는 '별'과 '바람'이 스며들었기에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③ '기왓장마다' 이끼와 세월이 덮여 감에도 멀리 있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에서 생성의 가능성을 찾는 모습이겠군.

- ⇒ '기왓장'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이끼'는 자연물이기에 자연을 상징합니다. '이끼'가 '기왓장'에

덮여 갔으므로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이 인간 역사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왓장'에 '세월'이 쌓였기에 인간의 역사가 쇠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보기>에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힘을 통해, 생성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④ '주춧돌 놓인 자리'에 봄이면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겠군.

➡ '주춧돌'은 인공물이기에 인간의 역사를 상징하고 '푸른 싹'과 '나무'는 자연물이기에 자연을 상징합니다. 이때, '주춧돌 놓인 자리에 가을풀은 우거졌어도'에서 인간의 역사가 쇠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푸른 싹이 돋고 나무가 자라는 것'은 <보기>에서 언급된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은 인간의 역사가 자연과 어우러져 생성의 힘을 수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⑤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낡은 처마 끝에 빛이 쏟아지는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인간의 역사를 다시 생성할 가능성이 나타남을 보여 주는군.

➡ '문'은 <보기>에 의하면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작품에서 '오래 닫혀진 문'이 '별들이 돌아오고', '비바람이 건넌 새벽'에 열리는 것은 순환하는 자연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이 실현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보기>에서 '이를 통해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인간의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향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한 것과 연결됩니다.